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전기공학도... 한국표준협회 최갑홍 회장 인터뷰...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탐을 신실하여 녹색성장에 관련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산업계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 고유특성에 맞게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그린 스탠더드의 확산·보급을 위해 국제 표준화활동에 참여, 우리 기술과 기준을 국제 표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녹색기업 인증 평가 사업, 청정개발체제(CDM) 평가기관 지정(2009. 3), 자발적 탄소기준 평가기관 지정(2009. 9) 등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가산동에 설립된 'KSA 가산디지털센터'는 30명씩을 수용할 수 있는 총 9개의 강의장을 갖춘 산업교육 전문센터로 그린표준, 녹색품질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친환경 녹색 교육장으로서 호평 받고 있습니다.

프로필

- 연세대 전기공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원 전기공학과 석사 졸업
- 미국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석사)
- 기술고등고시(전기직) 제13회
- 前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부이사관
- 前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現한국표준협회 회장

Q 최근 녹색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표준협회에서는 녹색산업 선점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A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그린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녹색 구매를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표준협회도 지난해 그린경영팀과 지속가능경영

Q 표준협회는 지난해 12월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녹색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A 표준협회는 녹색성장 교육을 통하여 산업계의 그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및 에너지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직접 강의에 참여하여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토론과 실습을 통한 교육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교육생들을 위하여 동일한 과정을 온라인화, 수강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녹색교육 과정이 현재 약 30여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과정으로는 ▲ 지속가능을 위한 그린 CEO 과정 ▲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과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실무자 과정 ▲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ISO 14001 Level-Up 과정 ▲ 녹색 관련 On-Line 교육과정 등이 있으며, 교육수강 후 다른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의 선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A 최근 표준과 기술기준이 통합되는 추세에 따라 표준의 국제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ISO, IEC,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표준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느냐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100년의 국제표준 역사에서 우리의 왕성한 발자취는 90년대 중반 이후 10여 년에 불과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표준 제안 건수는 2001년 7건에서 2009년 327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기술위원회 의장과 간사로 활동하는 국내인사도 95명에 달합니다. 주로 정보기술(IT)과 조선 분야의 신청이 활발하며, 그 가운데 동영상 압축기술(MPEG)과 와이브로(Wibro)기술, 지상파 DMB 기술, 온돌표준 등 상당수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헤게모니도 가질 수 있습니다.

Q 오랜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공공기관으로 옮기셨는데요. 공직에 입문하셨을 때의 포부와 협회에 근무할 때의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A 70년 초 대학 졸업 당시, 우리나라 산업은 많은 성장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왔던 이유는 우리는 외국에 비해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바른 정책을 수립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공공기관은 '수익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정부기관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습니다. 더욱이 표준협회는 공공기관이지만 공공성도 확보하고 수익성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후자 쪽에 대한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정부근무 시절보다 현장에 많이 가고 고객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Q 현재 기술표준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만큼, 세계 각국은 기술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시죠.

A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전 세계는 하나가 되면서 관세장벽이나 수량제한 등의 장벽이 없어지고 결국 기술장벽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회원국들은 WTO/TBT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술장벽까지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안전(safety),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에 관한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기술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WTO에 통보된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2005년 771건에서 2009년 1491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기술규제가 201건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향후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선진국의 노력이 배가될수록 기술 후진국의 방어적인 기술규제도 점차 늘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력산업분야도 과감한 투자를 통한 전문인력과 원천기술 확보, 글로벌 전력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동향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전담기구를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는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인들도 기술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응집된 마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